

보편을 분유(分有)하는 문학소녀들의 책임기

—전혜린의 독서 노트와 베스트셀러 『데미안』의 탄생

임진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목차

- 1 전혜린이라는 여성 교양의 아이콘
- 2 1960년대 헤세 문학의 의미망
- 3 전혜린의 번역과 헤세 문학의 재의미화
- 4 교양소설의 세계를 욕망하는 여성들
- 5 결론

이 글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전혜린의 독서 노트를 통해 베스트셀러로 재탄생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교양소설의 독자로서 여성의 존재를 문제화하고 그 문화사적 의미를 고찰한다. 1960년대 초반 한국에서 헤세는 전후 독일의 정신적 위대성을 알린 구도자이자 문호로 조명되었다. 그러나 전혜린의 수필집에 수록된 독서 노트를 계기로 『데미안』이 베스트셀러에 오름에 따라 헤세는 성장기의 애독서 『데미안』의 작가로 각인되기 시작한다. 독서 노트의 서두에서 전혜린은 『데미안』을 품에 안고 무덤에 들어간 여학교 동창에 대한 기억을 꺼낸다. 이 기억의 고백을 당시의 맥락 속에서 다시 읽을 때, 전혜린을 매개로 한 데미안의 베스트셀러화는 교양소설이 형상화하는 근대의 상징적 가치에 대한 여성 독자의 욕망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새로 읽히게 된다. 『데미안』이 상징하는 관념의 세계에 대한 매혹은 전혜린이 보편에 함몰되어 현실인식을 결여했다는 비판의 요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전혜린의 수필은 그녀가 보편의 세계에 매혹되었으므로 바로 그런 이유로 결코 보편이 될 수 없는 자신의 위치를 의식하며 소외를 경험하였음을 시사한다. 한국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중의 타자로서 보편의 언어를 욕망하였던 전혜린의 글은 서구 대 한국이라는 이항 대립을 가로지르며 그 내부적 균열들을 드러낸다. 독문학을 읽고 번역한다는 것은 이 같은 소외의 조건 속에서도 자율적인 내면을 소유한 인간으로서 자기를 주장하기 위한 과정이었거니와, 전혜린이 하나의 시대적 기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보편을 분유하고자 했던 그녀의 욕망이 수많은 여성 독자들의 것이기도 했던 까닭이다.

국문핵심어: 전혜린, 젠더, 번역, 교양소설, 헤르만 헤세, 데미안, 독서문화, 여성 독자

1 전혜린이라는 여성 교양의 아이콘

28일 오전 11시 서울 城北구 三仙동 5가 373 李甘雨(51) 여인의 장녀 崔伯樂(19) 양과 식모 朴良順(18) 양 등 2명이 자기 방에서 음독신음 중인

것을 최여인이 발견, 首都의대부속병원에 옮겼으나 崔양은 숨지고 朴양은 깨어났다.

崔양은 전날밤 田惠麟씨가 지은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는 수필집을 朴양과 같이 읽고 ”저자도 나와 똑같이 고독하다. 어디론가 가고 싶어“하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했다.¹

1966년의 한 신문 기사는 전해린(田惠麟, 1934~1965)의 유고 수필집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를 읽고 동반 자살을 시도한 두 여성의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19살과 18살로, 전해린의 수필집을 함께 읽은 뒤 자살을 결심하고 음독했다. 전해린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고독하여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것이 이들이 스스로 밝힌 자살 시도의 이유였다.

‘전혜린 현상’이라고 지칭될 만큼 당시 여성 독자들에게서 전해린의 인기는 뜨거웠다. 전해린이 남긴 수필집은 단 두 권에 불과하지만 이로써 그녀가 1960~1970년대 출판계와 문학계에 미친 영향력은 지대했다. 수필과 번역 등의 활동 시기를 바탕으로 할 때 전해린의 문학활동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존주의에 대한 탐닉이나 지적 허무의식의 측면에서도 1950년대 문학 장과의 연속성이 읽힌다.² 그럼에도 전해린이 ‘1960년대적’인 감수성의 상징으로 기억되는 것은 저자로서 전해린이 주목을 모으고 하나의 문화사적인 ‘사건’이 된 시점이 그녀의 사망 이후이기 때문이다.³ 전해린의 돌연한 죽음은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당대 최고의 여성 엘리트로서 전해린의 삶에 비극성과 낭만성을 부여하였거니와, 전해린 현상이란 “자살로 마감한 돌출된 개인사와 타고난 비

1 『동아일보』, 1966.8.29.

2 서은주, 「경계 밖의 문학인—‘전혜린’이라는 텍스트」, 『여성문학연구』 제1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36-40쪽.

3 전해린은 사망하기 전까지 10여 권의 작품을 번역하고 각종 잡지에 수필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는 않았으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역시 1966년 5월 출간 직후에는 주요 일간신문에서 단평으로 소개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읽히던 이 책이 발간 15일 만에 재판에 들어가고 16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키자 같은 해 11월 전해린 전집이 기획되고 『미래완료의 시간 속에』의 출간이 진행되었다. 정은경, 「전혜린 신화와 평전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44호, 우리문학

범성, 서구 추수적 지향성에 대한 대중의 동경이 만들어낸 결과물”⁴이었다는 평가가 이상의 사정을 요약한다.

그러나 전해린 현상이 그녀의 죽음에 의해 추동되었다고 해서 이를 엘리트 여성에 대한 신비화나 낭만화로만 일축할 수는 없다. 실존적 고뇌에 사로잡혀 죽음에 이른 여성은 1960년대 중반 한국에서 낯설지 않은 형상이었던 탓이다. 이미 1960년대 초반 신문지면에는 실존문학을 애독하던 문학소녀들의 죽음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신문에서는 흔히 까뮈와 사르트르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의 작품이 소녀들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면서도 실존문학 그 자체보다는 문학소녀들의 미성숙이나 감상성 등에서 문제를 찾아냈다. 이렇듯 소녀들의 ‘잘못된’ 독서를 비난해야 했던 것은 문학이 사회의 지배적 자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역으로 그와 길항하며 새로운 자아의 표현형식과 존재방식을 창안할 수도 있는 것이었던 데서 연유한다.⁵ 전해린의 죽음, 그리고 그녀를 뒤따른 문학소녀들의 죽음은 독서에 내포된 이 같은 긴장을 가시화하는 사건이었고, 그런 까닭에 그녀들의 죽음을 계몽 담론 내에서 해석하고 배치하는 것은 긴요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전혜린의 유고 수필집에 실린 서문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전형적인 해석을 보여준다. 서문을 쓴 표문태는 전해린의 죽음으로부터 전후 한국의 청년들이 처해 있는 정신적 상황을 진단한다. 그에 따르면 전해린의 죽음은 “한번밖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현존〉을 남김 없이 가득 채워서 살지 못하면 곧 죽음을 연상하게 되리만큼” 강렬한 실존적 열망이 “식민지풍의 〈못생긴 고향〉과 척력을 일으킨 결과이다. 전해린의 정신은 서구의 실존주의에 사로잡혔으나 그녀의 현실은 서구가 아닌 전후 한국이었던 데 비극이 원인이 있었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전해린의 인기가 보여주듯 많은 독자들이 그녀에게 공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표문태는 전해린의 죽음을 전후 한국 청년들의 정신적 단면으로 이해하면서

회, 2014, 765쪽.

4 서은주, 「[4·19 50년] 1960년대적인 것과 전해린 현상」, 『플랫폼』 제20호, 인천문화재단, 2010, 37쪽.

5 천정환, 「처세·교양·실존—1960년대의 ‘자기계발’과 문학문화」, 『민족문학사연구』 제40호, 민족문학사학회, 2009, 116-117쪽.

도 그녀의 죽음과는 선을 긋는다. 고향을 미워하고 이국을 선망하는 것은 후진국에서 흔한 현상이나 이는 마땅히 극복되어야 할 태도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때 “혜린이 넘어서지 못했던 벽에 새로운 통로를 발견해주기를 젊은 독자들”⁶에게 촉구하면서 특히 그녀의 고독과 죽음에 공감하는 여성 독자들을 재차 언급하는 대목은 문학소녀들의 죽음을 명백히 의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애도의 방식이 논리적인 모순을 낳는 지점이다. 한편으로 전혜린의 죽음은 실존주의를 잘못 이해한 젊은 세대의 경향성을 대변하지만, 다른 한편 그녀의 죽음은 서구 사회에 경도된 한 엘리트의 비극적 사례로 풀이된다. 전혜린이라는 인물에게 현 세대의 대표성과 엘리트로서의 예외성이 동시에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평가는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도 기실은 내적으로 긴밀한 연관을 맺는다. 전혜린의 죽음은 젊은 세대의 정신적 경향을 드러내는 징후였으되, 바로 그런 이유로 그것은 한 예외적 개인의 극단적 사례로 규정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도가 전적으로 관철되지 못하였음은 전혜린의 수필집을 읽고 그녀를 따라 지금 이곳이 아닌 어디론가 떠나고자 했던 여성 독자들의 존재가 방증한다. 말하자면 그녀들에게 “식민지풍의 <못생긴 고향>”의 현실을 타개하는 문제보다 중요했던 것은 “한번밖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현존>”이었고, 그녀들의 현존은 “<못생긴 고향>”에만 귀속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은 전혜린의 인기가 그녀의 수필집에 언급된 소설 『데미안』의 베스트셀러화로 이어진 일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뒷받침된다. 독일 교양소설(Bildungsroman)의 전통에 놓이는 『데미안』은 청년기 일반의 방랑과 성장을 주제로 한다. 근대의 상징적 형식으로서 독일 교양소설이 남성 주체의 성장을 형상화하는 것일 때 ‘여성교양소설’이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 될 터이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혜린의 독자들이 『데미안』에 매혹되었다는 사실은 교양소설의 독자로서 여성의 존재를 문제화하는 한편, 교양 담론 내에 위치하면서도 그것에 수렴되지만은 않았던 여성 독자들

6 표문태, 「전혜린과 전혜린의 글에 대하여」, 전혜린, 『이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 동아PR연구소출판부, 1967.

7 김미정, 「‘한국-루이제 린저’라는 기호와 ‘여성교양소설’의 불/가능성—1960~1970년대 문예 공론장과 ‘교양’의 젠더」,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의 주체성을 들여다볼 단초를 마련한다.

1960년대의 대표적 베스트셀러이자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랑받은 교양서로서 『데미안』을 논할 때 그것의 인기를 촉발한 매개자로서 전혜린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다. 1960년대의 베스트셀러 현상 및 청년 세대의 독서문화⁸는 물론, 헤세 문학이 한국에서 수용되는 통시적 흐름⁹에서도 전혜린의 이름은 중요하게 언급된다. 그러나 『데미안』이 성장기 일반의 고뇌를 다루는 소설인 까닭에 그것의 인기를 견인한 존재로서 전혜린의 젠더는 주목되지 못하였다. 그에 비해 전후 여성 교양에 관한 연구나 전혜린론에서는 그녀의 젠더에 관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다.¹⁰ 그러나 그 가운데 전혜린의 번역 행위를 주제로 삼은 경우는 많지 않으며, 여성 번역자로서 전혜린의 정체성에 주목하는 연구는 최근에야 본격화되는 추세이다.¹¹

전혜린을 수필가로 기억하는 방식이 그녀의 의식세계를 사사화하고 그녀를 향한 애도의 사회적 의미를 곡해하게 하였다는 타당한 지적을 고려할 때,¹² 전혜

246쪽.

- 8 이윤희, 「1960~70년대 베스트셀러 현상과 대학생의 독서문화—베스트셀러 제도의 형성 과정과 1970년대 초중반의 독서 경향」, 『한국학연구』 제41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64-66쪽.
- 9 안미영, 「헤세 문학의 수용, 자기완성의 수신서」, 『어문론총』 제73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 132-136, 141-143쪽.
- 10 장순란, 「한국 최초의 여성 독문학자 전혜린의 삶과 글쓰기에 대한 조명」, 『독일어문학』 제21호, 한국독일어문학회, 2003;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제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김양선, 「1950년대 세계여행기와 소설에 나타난 로컬의 심상지리—전후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정은경, 앞의 글; 이행미, 「전혜린의 젠더의식과 실천적 글쓰기」, 「전혜린의 젠더의식과 실천적 글쓰기」, 『여성문학연구』 제4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 11 대표적으로 박숙자, 「여성은 번역할 수 있는가—1960년대 전혜린의 죽음을 둘러싼 대중적 애도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제38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이밖에도 루이제 린저 등 독일 여성 문학의 번역과 관련하여 전혜린의 젠더의식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김미정, 「‘한국-루이제 린저’라는 기호와 ‘여성교양소설’의 불/가능성—1960~1970년대 문예 공론장과 ‘교양’의 젠더」, 권보드레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이행미, 앞의 글.
- 12 박숙자, 앞의 글, 7-9쪽.

린이라는 여성 번역자의 문화사적 의미는 더욱 활발히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 하나의 시도로서 본고는 특히 전혜린의 『데미안』 번역 및 소개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본 연구가 교양소설의 독자로서 여성의 존재를 문제화하며 이를 예시하는 사례로서 전혜린이라는 번역자를 논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데미안』의 수용에 있어 전혜린의 역할과 그 의미를 그녀의 젠더와 관련하여 의미화하는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도된 바 없다. 『데미안』이 남성 작가의 작품이며 주제의 측면에서도 인간의 보편적인 성장기를 다루고 있다는 데 주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바로 이 점에서 『데미안』은 전혜린에게 제기되어 왔던 추상성과 관념성 등의 비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여성 번역자로서 그녀를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텍스트가 된다. 나아가 『데미안』을 중심으로 전혜린의 텍스트와 전혜린 현상에 접근하는 방식은 1960년대의 아이콘으로 주목되면서도 예외적 개인으로 고립되어 다루어지곤 했던 전혜린을 동시대의 다른 텍스트들과 관계 지우고 문화사적 의미를 새로 밝혀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론의 2장에서는 먼저 1960년대 한국에서 헤세 문학의 의미망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전혜린이라는 매개자를 통해 헤세 문학을 수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데미안』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린 계기였던 전혜린의 독서 노트 및 관련 텍스트를 통해 전혜린이 헤세 문학을 소개하는 방식의 특성을 검토하고, 그것이 앞서 살펴본 헤세 문학의 의미망 안에서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밝힌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데미안』이라는 교양소설의 매혹과 그것의 함의를 근대적 주체로서 여성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논한다. 이는 이 시기 여성들의 문학 읽기를 당대의 지배 담론 속에서 균열을 만들어내며 주체를 구성해나간 과정으로 다시 조명하는 작업의 일환이 될 것이다.

2 1960년대 헤세 문학의 의미망

「괴테」以來 獨逸의 最大 抒情詩人이요 「노벨」文學賞을 탄 「헤르만 헤세」가 9日 他界하였다.

그는 文學家라고 하기보다는 一種의 求道者로서 良心의 守護者와 精神的

指導者로서 全世界에서 推仰을 받아왔다. (…)

그는 人類의 한사람으로서 人類의 運命 特히 西歐의 運命을 冷徹하게 洞察한 사람이다. 物質文明의 爛熟과 더불어 모든 것이 機械化하는 가운데에서 그는 人間의 精神의 尊貴性을 드러내려고 하였고 自然의 神祕에 대해 敬虔을 잃지 않았다. 그의 作品世界가 東洋의 情緒에 가득차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오늘의 人類의 進路에 새로운 示唆을 주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獨逸은 2次大戰에 敗北하였지만 大戰後 「헤르만 헤세」에게 「노벨」文學賞을 授與함으로 말미암아 人類는 獨逸民族의 精神의 指導性을 다시 認定한 셈이다. 그런 意味에서 「헤세」는 眞正한 意味에서의 愛國者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文豪를 特히 哀悼하는 것은 그의 文學者로서의 偉大性을 認定하는 까닭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偉大한 文學者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¹³

헤세의 이름이 국내 언론에 본격적으로 오르내린 것은 그가 서거한 1962년 이후의 일이다. 당시 많은 신문 기사들은 헤세를 애도하며 그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소개하였는데, 위의 인용문도 그중 하나다. 인용문은 이 시기 헤세가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명되고 있었는지를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기사는 헤세를 한 사람의 작가이기보다는 인류의 정신적 진로를 제시한 지도자로 평가한다. 노벨상 수상이 이 같은 평가의 근거로, 이때 눈여겨볼 것은 헤세라는 한 인물의 성취가 자연스럽게 독일 민족의 위대성으로 풀이되는 논리의 흐름이다. 기사는 헤세에 대한 한국인들의 애도가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며 그 이유를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위대한 문학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찾는다.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우리에겐 왜 대작이 없을까?”¹⁴라는 한탄 섞인 질문이 따라붙었던 만큼 헤세에 대한 이 같은 심경이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는 헤세의 노벨상 수상을 특별히 뼈아픈 사례로 받아들인다. 헤세의 수상이

13 「「헤세」를 애도한다」, 『경향신문』, 1962.8.11.

14 「우리에겐 왜 대작이 없을까」, 『경향신문』, 1962.10.30.

다름 아닌 독일의 패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이다. 이를 열악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정신적 성취가 가능하다는 증거로 여기며 기사는 “문화의 전통이나 소질로 보아 결코 타민족에게 뒤떨어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헤세와 같은 문학자가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한다. 전후의 역사적 조건이 독일과 한국의 유비를 성립시키고, 이와 더불어 독일 작가인 헤세의 세계적 위상도 주목을 모으는 모습이다.

비슷한 시기 『사상계』에 실린 가장 본격적인 헤세론이라고 할 수 있을 「헤르만·헷세의 문학과 생애—그의 서거에 부쳐서」에서 김정진 또한 헤세를 구도자적인 품격의 소유자로 평가한다. 헤세는 오직 자기 내면에 깃든 규범에만 복종하였으며, 이 같은 고집은 어떤 종류의 권력이나 압제에도 굴하지 않는 영웅적 면모로 나타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정진은 헤세의 작품이 서정적 시정(詩情)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것을 단순한 감상성과는 구분한다. 헤세의 서정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정신의 세계에 대한 의식적 추구로 거듭났으며, 이 점에서 헤세는 “내면의 길을 탐구하는 새로운 구도가적 철인(哲人)”¹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진은 이 같은 철인의 획기적인 교양소설로 『데미안』을 소개하며 이 작품이 전후 독일 청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나치의 억압과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참된 자기 자신을 추구해나갔다는 점에서 헤세야말로 끝까지 괴테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은 인물이라고 평하며 『유리알 유희』에 이르러 마침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가 그렸던 교육의 이상이 집대성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의아한 것은 이렇듯 위대한 문인인 헤세가 학생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어감과 동시에 헤세에 대한 보도의 논조가 부정적으로 기울어진다는 점이다. 1966년 『동아일보』는 이화여대학보사가 조사한 재학생 450여 명의 독서 실태를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최근 이화여대 학생들이 취미로 읽는 책의 92%가 문예물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는 작가 중 하나가 바로 헤세이다. 그런데 기사는 헤세의 문학을 마가렛 미첼, 토마스 하디 등과 묶으며 이들을 “달콤한 카타르시

15 김정진, 「헤르만·헷세의 문학과 생애—그의 서거에 부쳐서」, 『사상계』 제111호, 1962.9, 231쪽.

스의 작품”¹⁶에 불과하다고 평한다. 더불어 까뮈, 카프카, 포크너, 조이스 등을 기피하는 데서도 손쉬운 작품만을 골라 읽는 경향이 확인된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독서 실태에 우려를 표한다. 먼저 살펴본 글들과 시기적인 격차가 크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헤세에 대한 이 같은 논조의 변화는 자못 갑작스럽다.

『이대학보』에 발표된 설문 결과와 비교할 때 『동아일보』의 보도는 한층 더 의문을 낳는다. 『이대학보』의 기사는 『동아일보』에 소개되지 않은 항목들을 자세히 싣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가장 난해한 작품’으로 학생들은 사르트르, 까뮈의 작품과 더불어 헤세의 『유리알 유희』를 꼽고 있다.¹⁷ 이는 헤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손쉬운 작가에 대한 선호로만 규정될 수 없을뿐더러, 헤세, 미첼, 하디를 하나로 묶고 까뮈, 카프카 등과 대비시키는 방식 역시 자의적인 구분임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설문 결과가 선별되어 옮겨지면서 헤세의 작품이 “달콤한 카타르시스의 작품”으로 분류된 것은 어떠한 맥락에서일까.

질문의 해답은 『동아일보』에 소개된 설문의 다른 항목으로부터 찾아진다. 기사에 따르면 그해 여학생들이 고른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의 네 번째 순위에 헤세의 『데미안』이 올라 있다. 같은 항목에 미첼, 하디 등의 작품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데서 미첼, 하디, 헤세 등을 하나로 묶은 근거가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그보다 주목되는 것은 이 같은 분류가 헤세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데미안』을 기준으로 성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해당 항목의 설문 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차이가 확인된다. 미첼, 하디 등의 작품이 1965년과 1966년 모두 순위권에 오른 데 비해 『데미안』은 1966년의 설문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¹⁸ 이는 헤세 문학에 대한 인식이

16 「이대독서실태」, 『동아일보』, 1966.9.27.

17 설문에서 학생들이 애호하는 외국작가는 헤세(27%), 도스토예프스키, 하디, 헤밍웨이(각각 10%), 제임스 조이스, D.H.로렌스, 토마스 만, 존 밀튼, 괴테(각각 4%) 등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가장 난해한 작품’의 순위에는 까뮈의 『페스트』, 사르트르의 『구토』,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카프카의 『성』과 더불어 헤세의 『유리알 유희』가 1순위(각각 11%)에 올랐다. 「책과 이대생」, 『이대학보』, 1966.9.26.

18 1965년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작품으로 꼽힌 것은 『테스』(하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미첼), 『좁은 문』(지드), 『주홍글씨』(호손), 『죄와 벌』(도스토예프스키) 등이다. 한편 1966년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미첼), 『좁은 문』(지드), 『테스』(하디), 『데미

달라진 결정적 계기로서 『데미안』이 인기를 얻은 1966년을 하나의 기점으로 놓아볼 수 있음을 뜻한다.

『데미안』이 베스트셀러가 된 과정을 되짚을 때 1966년이라는 기점은 더욱 의미심장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미 1955년 『젊은날의 고뇌』라는 이름으로 영웅출판사에서 출간된 적이 있었던 『데미안』은 당시에는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고 거의 잊히다시피 했다. 그랬던 『데미안』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1966년 문예출판사가 『젊은날의 고뇌』의 번역자 김요섭으로부터 판권을 사들이고 『데미안』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간한 이후의 일이다. 『데미안』은 출간 직후 젊은 층, 특히 사춘기 여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그해에만 5만 여부의 책이 팔려 나갔는데 이는 출판사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당시 책을 읽는다는 학생, 그 중에서도 여학생들은 대부분 『데미안』을 들고 다녔다고 이야기될 정도로, 이 같은 인기는 곧 출판계의 혜세 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¹⁹ 혜세가 성장기의 독본 『데미안』의 작가로 각인된 것은 이 시기 이후의 일이다.²⁰ 그리고 바로 이 변화의 지점에 전혜린이라는 아이콘의 문제성이 놓여 있다. 『데미안』이라는 베스트셀러의 탄생을 견인한 것이 다름 아닌 그녀였기 때문이다.

1966년 이화여대 설문에서 ‘최근에 읽은 책’으로 거의 모두가 전혜린의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를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²¹ 회고에 의하면 문예출판사가 『데미안』의 판권을 사들이기에 앞서 이미 서점가는 『데미안』을 찾는 여학생들로 붐비고 있었다.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의 인기가 이 책에 언급된 『데미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결과였다. 서점에 『젊은 날의 고뇌』가 꽂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학생들이 찾는 바로

안』(혜세), 『죄와 벌』(도스토예프스키)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1966년 『동아일보』의 기사는 미첼, 하디를 혜세와 더불어 “달콤한 카타르시스의 작품”으로 분류하는 한편, 지드, 도스토예프스키를 손쉽게 접근 가능한 고전 문학으로 분류하며 여학생들의 독서 경향을 비판한다. 「여대생과 독서」, 『경향신문』, 1965.8.28; 「이대독서실태」, 『동아일보』, 1966.9.27.

19 구건서, 「흘러간 만인의 사조 베스트 셀러(15) 헤르만 헤세작 「데미안」」, 『경향신문』, 1973.6.2.

20 한국에서 혜세 문학이 수용된 통시적 흐름과 그 특성에 관하여는 안미영, 앞의 글 참조.

21 「책과 이대생」, 『이대학보』, 1966.9.26.

그 『데미안』이라는 것을 몰라 판매하지 못했다는 우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판권을 사들인 문예출판사는 『데미안』의 홍보와 판매에 있어 일차적으로 여학생들을 타겟으로 삼았다. 서울 시내의 유명한 여고 문예반 학생들에게 『데미안』을 기증하는가 하면, 광고에서 전혜린의 수필집에 나오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운 것 등이 단적인 예다. 이 같은 전략이 거둔 효과는 『데미안』이 출간 이후 줄곧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는 사실을 통해 입증된다.²²

앞서 살펴본 1966년의 기사에서 헤세 문학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달라진 배경은 이로써 설명된다. 『데미안』이 성장기 학생들의 애독서라는 인식은 『데미안』과 더불어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한 헤세의 문학을 평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데미안』이 인기를 얻은 계기가 전혜린의 수필집이라는 사실 또한 이 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전혜린의 수필집 자체가 문학적으로는 크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더러, 전혜린의 인기 역시 여성 독자들의センチ멘털리즘이나 서구 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 등으로 풀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세 문학의 수용에 있어 전혜린의 역할은 그녀가 『데미안』을 번역한 적이 있다거나 그녀의 수필집을 통해 『데미안』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사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성 독자들의 독서 경향을 대변하는 사례로서 『데미안』에 대한 평가는 이들의 독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나아가 전혜린이라는 상징은 1960년대 신문지면에 오르내렸던 사회적 사건, 곧 문학소녀들의 죽음을 둘러싼 의미 투쟁을 이어받고 있었던바, 『데미안』의 인기 역시 보다 넓은 맥락에서의 고찰을 요한다.

3 전혜린의 번역과 헤세 문학의 재의미화

『데미안』의 인기가 전혜린으로부터 시작된 만큼 당시의 신문광고는 전혜린의 수필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짧은 날의 고뇌의 상(像)을 부각한 청춘의 바이블!”이라는 문구나 “독일 전철학도들의 배낭에서 꼭 발견되었다는 책”이라는 소개, 또 “고독하게 모색하고 지치도록 갈망하고는 죽음에 의하여 자기의 운명을

22 구건서, 앞의 글.

성취하는 인간상”²³이라는 설명 등은 모두 전혜린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굵은 글씨로 강조된 “청춘의 바이블”이라는 문구는 광고가 겨냥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그러나 한편으로 광고는 『데미안』이 자기 운명을 발견하고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모색을 담고 있다는 설명도 빼놓지 않는다. 이 책이 젊은 한때의 고뇌를 넘어 보다 심오한 인간 실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소개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독일 전몰학도들의 배낭에 항상 『데미안』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후의 실존열을 이어받을 수 있는 홍보의 전략이기도 했다.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광고로 옮겨지면서 전혜린의 독서 노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데미안』이라는 책에 대한 전혜린의 인상을 강렬하게 결정지은 일화가 그것으로, 그 사건에 대한 고백은 독서 노트의 도입부를 길게 채우고 있다.

고등학생 때와 대학교 일, 이학년 때 누구나 한 번씩 사로잡히는 책이 헷세의 『데미안』이다. 나도 더 클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읽었던 것을 기억한다. 개인적인 이유에서도 『데미안』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책이 되어 버렸다. 『데미안』을 몹시 사랑하던 내 친구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나에게 와서 『데미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다. 다음주 월요일 꼭 다시 갖다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친구는 빨간줄 투성이인 내 『데미안』을 빌려갔다. 여학교 동창이고 기계처럼 每事에 정확한 모범생인 그 동무는 월요일에 나에게 오지 않았다. 나는 무심코 별일 없이 그냥 못 오게 되었는데 줄만 알고 있었다. 그후 약 반달이 넘어서야 나는 그 아이가 그때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못 온 것을 알았다. 죽는 순간까지 『데미안』을 읽고 있었다 한다. 그래서 그 책도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고 말았다. 왜 죽었을까? 그 아이는? 나는 한 반년간은 그 의문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었다. 지금도 그날—책을 빌리러 나에게 왔던 날—이 생각나고 그후 길가에서 무심코 제삼자의 입에서 그 아이의 죽음을 들었을 때의 경악이 안 잊혀진다. 겨울이었다. 아마 나는 일생 그 일은 내 뇌리의 어느 구

23 『동아일보』, 1966.11.24.

석에 간직하고 있을 것만 같다. 데미안, 데미안은 누구인가? 독일의 戰
 歿學徒들의 배낭에서 꼭 발견되었다는 책, 누구나 한번은 미치게 만드는
 책, 도대체 그 마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고 왜 우리는 『데미안』을 읽고 또
 읽고—때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읽어야만 했는가? 데미안—유년기의
 향수 같은 맛, 서럽고 감미로운 이름이다. 도대체 헛세는 『데미안』을 통
 해 어떤 인간을 浮刻하려고 한 것일까?²⁴

전혜린은 청년기에 누구나 한번은 사로잡히는 책이 『데미안』이라고 말문을 연
 뒤 개인적인 기억을 꺼내어놓는다. 전혜린으로부터 『데미안』을 빌려간 여학교
 동창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전혜린은 “왜 죽었을까? 그 아이는?”이라는 질
 문이 오랫동안 자신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회상한다. 분명한 것은 친구가 죽는 순
 간까지 『데미안』을 읽었고, 무덤에까지 그 책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더
 욱이 동창의 무덤에 함께 묻힌 『데미안』은 바로 전혜린의 것이었고, 그 책에는
 과거 전혜린이 그어둔 밑줄이 가득했다. 그러므로 전혜린은 “왜 죽었을까? 그 아
 이는?”이라는 질문을 바꾸어 “데미안, 데미안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데미안』이라는 책으로 인해 동창의 죽음과 무관할 수 없게 된 이상, 동창의 죽음
 이 『데미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전혜린이 『데미안』이라는 책으로부터 연상하는 구체적인 죽음의 이
 미지는 독자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것이었다. 실존적 고뇌에 사로잡힌 문학소녀
 의 죽음은 이미 1960년대 초반 신문지면을 여러 차례 달구어왔던 까닭이다. ‘문
 학소녀’라는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매번 죽음의 동기로 지목된 것은 그녀들
 이 즐겨 읽던 문학, 특히 실존의 문제를 다루는 까뮈와 사르트르 등의 작품이었
 다. 그러나 설령 동기를 제공하였을지라도 죽음의 진정한 원인은 실존주의가 아
 닌 소녀들에게서 찾아지곤 했다. 소녀들이 “그 지성을 가지고서는 결코 소화할
 수 없는 실존주의사상”²⁵에 접근한 것 자체가 문제라거나, “죄는 독약 자체에 있

24 전혜린, 「두 개의 세계—데미안의 경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아PR연구소출
 판부, 1966, 187-188쪽.

25 「실존문학과 두 여고생의 경우」, 『경향신문』, 1960.8.21.

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잘못 복용한 어린 소녀의 지성에 있을 뿐”²⁶이라는 진단이 대표적인 예다. “참된 문학소녀라면 죽었을 리가 없다”²⁷라며 문학소녀의 폼하를 경계하는 글에서도 죽은 소녀들이 문학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시각은 반복되었다.

전혜린의 독서 노트는 바로 이러한 죽음의 이미지를 상기시키며 질문을 던져나간다. 여학교 동창이 죽은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전혜린이 떠올리는 것은 독일 전몰학도들의 사례이다. 동창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데미안』을 품에 지니고 죽은 청년들이다. 그러므로 전혜린은 동창이 죽은 이유를 그녀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데미안』이라는 책 자체의 매력에서 찾기 시작한다. 이를 문학소녀의 죽음을 둘러싼 앞선 보도들과 비교할 때 차이는 분명하다. 전혜린은 『데미안』이 “누구나 한 번은 미치게 만드는 책”이라고 이야기하며 여학교 동창과 독일 전몰학도의 죽음을 포개어놓는다. 일견 이들의 죽음 사이에서 유사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데미안』의 매력은 더욱 부각되며, 그 앞서는 하나의 추상, 곧 실존적 고뇌에 사로잡힌 문학청년의 형상만이 남겨진다.

『데미안』의 신문광고가 전혜린의 기억과 더불어 생략하는 것은 바로 이 일련의 연상 과정이다. 그러나 이상의 연상을 빼놓고는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의 인기가 『데미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로 전혜린의 수필집은 『데미안』 외에도 다수의 문학 작품을 언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서점으로 달려가 『데미안』을 찾은 것은 이 책에 대한 전혜린의 독서 노트가 그녀의 수필집을 읽는 독자들의 욕망을 정확히 건드렸기 때문이다. 『데미안』이라는 책을 찾기에 앞서 독자들은 먼저 전혜린의 노트를 통해 『데미안』에 대한 상(像)을 가졌고, 바로 그것이 독자들을 『데미안』이라는 책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한 소녀의 죽음에서 시작되는 전혜린의 노트는 『데미안』이라는 책 속에 그 죽음의 내막을 감추어둔다. 전혜린의 수필집이 그녀의 사후에 출간되었던 만큼, 전혜린의 노트는 소녀의 죽음과 더불어 전혜린 자신의 죽음 역

26 박이문, 「두 소녀와 문학작품—여고생의 자살을 생각하며」, 『경향신문』, 1960.8.30.

27 박화성, 「감상에만 흐르지 않게」, 『세 여고생 연쇄 음독사건의 교훈』, 『동아일보』, 1962.2.14.

시 상기하게 하였을 터이다. 『데미안』이 베스트셀러로 재탄생한 배경에는 문학 소녀의 죽음, 나아가 그것과 이어지는 전혜린의 죽음에 대한 여성 독자들의 관심과 그들의 죽음을 향한 해석의 욕망이 놓여 있었던 셈이다.²⁸

동창이 빌려간 『데미안』에 전혜린이 그어둔 밑줄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전혜린 역시도 한때 문학 창작을 꿈꾸었으나 그 뜻을 실현하지는 못한 문학소녀의 하나이기도 했다. 전혜린이 헤세의 작품, 그중에서도 특히 『데미안』에 애정을 가진 것은 이 같은 배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신구문화사의 『노오벨상문학전집』에서 헤세의 작품을 편하였을 때 노벨상 수상작인 『유리알 유희』 대신 『데미안』을 선택하였을 만큼 이 작품에 대한 전혜린의 애정은 각별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번역자로서 전혜린은 문학사적 가치 평가보다는 인간 실존의 고뇌를 다루는 작품들을 선택하는 행보를 보였고, 이는 그녀에게 있어 번역이 지금-여기에서의 현재화된 질문과 연동된 작업이었음을 의미한다.²⁹ 이러한 맥락에서 『노오벨상문학전집』에 실린 역자 해설은 헤세 문학에 대한 전혜린의 해석과 더불어 그에 투영된 전혜린 자신의 실존적 질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 글에서 전혜린이 파악하는 헤세 문학의 주제는 “참된 자기에의 길”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그에 따르면 헤세는 “인간이 자기를 세계내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천착하였고, 이는 사춘기의 고뇌를 극복하는 문제에 다름 아니다. 이 점에서 전혜린은 젊은이들을 향한 헤세의 구제의도를 읽어내며 그의 문학을 독일 교육소설 및 교양소설의 전통 속에 놓는다. 그러나 곧이어 전혜린은 헤세의 문학에서는 교육의 목적도, 내용도 지극히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일반적인 교양소설과의 차이점을 짚는다. 헤세는 사회적인 현실세계에는 기막힐

28 이와 관련하여 전혜린의 독서 노트가 다름아닌 그녀의 유고 수필집에 실려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해둘 필요가 있다. 전혜린의 노트가 여타의 지면에 실렸을 때와 전혜린 개인의 유고 수필집에 수록되었을 때 그 성격은 독자들에게 다르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언급하였던 독서 노트의 본론, 즉 『데미안』을 해설하는 관념적인 어휘들뿐만 아니라 그 앞머리에 놓여 있는 전혜린의 사적인 기억과 그것이 읽혔을 현실의 문맥에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29 박숙자, 앞의 글, 26쪽.

정도로 무관심했으며, 오직 “먼 곳으로, 목가 속으로, 또는 과거 속으로, 미래 속으로” 들어가기만을 꿈꾸었다는 것이다. 헤세의 문학은 젊은이가 현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자리를 만드는 일과는 전혀 무관하며, “어떻게 하면 세계내 존재(世界內存在)를 돌파할 것인가?”³⁰를 탐구하였던 동시대의 작가들과는 명백히 대조된다. 이런 이유로 전혜린은 헤세가 지녔던 구제의도가 성실했다고 파악하면서도 그 효과는 모호하거나 미미하다고 평가한다.

흥미로운 것은 전혜린이 젊은이들의 구제에 있어서 헤세 문학의 무능을 지적한 뒤 바로 이 점에서 헤세 문학의 가치를 다시 매긴다는 점이다. “작가의 과제는 독자에게 사회적인 일상적인 생활태도의 규범을 지어 주는 데 있지 않다”³¹고 표명했던 헤세의 신념을 서술한 뒤 전혜린은 헤세 문학의 위대성을 이와 같이 역설한다.

헤세의 강점(強點)은 도대체 도덕적인, 전도적인 데 있지 않다. 자신을 현실 속에 처리 못하는 것, 자기로부터 거리를 가질 수 없는 것, 자기를 잃는 것이 언제나 헤세의 작품에서 문제되어 있다. (...) 에른스트·로버트·쿠르티우스는 「생의 과제의 포기」가 사실상 헤세의 테에마였다고 말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헤세의 책은 전부가 현실의 세계에서부터 자기 자신이 엮은 꿈의 나라 속으로의 도피를 테에마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헤세는 언어의 의미를 회의했고, 一九세기 말의 많은 작가와 더불어 도대체 문학의 의미를 회의했다. 근본적으로 보아서 그는 문학에서도 도피하려고 했다. 그의 주인공들은 음악가, 화가, 조각가, 선생, 수도사 등이었다. 최종으로 『유리구슬놀이』에서는 교단(敎團)까지 조직하나, 주인공 크네히트는 탈단하고 죽음을 맞게 된다. 도대체 그의 주인공들은 어떤 관념을 좇아서 현실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다가는 죽어간다.

30 전혜린, 「전통주의적 작가 헤세」, 헤르만 헤세, 전혜린 외 역, 『노오벨상문학전집 5』, 신구문화사, 1964, 134쪽.

31 위의 글, 136쪽.

『데미안』에서도, 『Narziss와 Goldmund』에서도, 『Steppenwolf』에서도, 『Siddhartha』에서도, 『Glasperlenspiel』에서도, 모두 죽음이 주인공들의 드라마를 끝맺고 있다. 이 관념 과다와 죽음에서 도피 사상-Todessehnsucht도 전형적인 도이치적인 낭만적인 것으로서 헤세는 도이치가 낳은 최후의 위대한 전통주의적 작가였다고 볼 수 있다.³²

인용한 대목에서 전혜린이 파악하는 헤세 문학의 강점은 문학의 구체적인 역할과는 반대편에 놓인다. 헤세의 인물들은 “생의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 테마로 비칠 정도로 집요하게 현실 세계에서 도피하여 마침내는 죽음으로 자신들의 드라마를 끝맺는다. 이들의 죽음을 전혜린은 어떤 관념을 좇아 현실 밖으로 뛰쳐나간 결과로 풀이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부정적인 도피가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영혼이 조금도 없고, 차갑고 기계적으로 굳어져 있고, 인습적인 현실” 속에서 “순수한 인간으로 되는 길”³³을 추구한 적극적인 행위에 가깝다. 그러므로 전혜린은 헤세의 문학이 고뇌와 모순과 수수께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보다 높은 것을 추구하는 과정이었다고 결론 짓는다.

이상과 같이 헤세 문학을 압축할 때 『데미안』은 헤세 문학 전체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작품이 된다. 전혜린은 헤세의 문학과 생애 전체가 현실로부터의 도피였으나 그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녀에 따르면 한때는 헤세도 성공적으로 시민적인 생활을 꾸린 ‘시민적인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전혜린은 이 시기 헤세의 작품 속에서 그의 욕구불만을 읽어낸다. 이 무렵 헤세는 옳고 그름의 판단은 물론 생활 전반에서 부모와 친척들의 지배를 받았고, 이에 겨우 27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늙은이처럼 노화를 탄식하며 청춘을 그리워했다는 것이다. 그랬던 헤세에게 전쟁은 인습적인 외면 내부에 억압되어 있었던 꿈의 환영들을 들여다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전혜린은 당시 헤세가 정신분석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고 그 결과물로서 『데미안』이 탄생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렇게 써진 『데미안』을 “모성(母性)의 찬가, 인간 존재의 원천에 대

32 위의 글, 같은 쪽.

33 위의 글, 137쪽.

한 찬가”이자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에 대한 증오의 감정에 넘쳐 있는 사춘기의 고뇌의 책”³⁴으로 평가한다.

요컨대 전혜린이 파악하는 『데미안』은 인습적이며 타율적인 삶과 결별을 고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청춘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눈여겨볼 것은 여기에서 전혜린이 젊음의 의미를 바꾸어내는 지점이다. 『데미안』이 젊음을 테마로 다룬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생물학적인 나이를 가리키지 않는다. 젊은 헤세가 이미 노화를 탄식한 데서 알 수 있듯,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인 젊음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가치들이다. 『데미안』의 주제가 헤세 문학 전체, 나아가 헤세의 생애 전반을 관통하는 화두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서 젊음의 자질로서 주목되는 내면성과 이동성은 근대의 상징적 형식으로서 교양소설이 젊음으로부터 추출하는 상징적 가치들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근대적 사회화를 장려하는 형식으로서 교양소설은 그것이 형상화하는 젊음의 제한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³⁵ 전혜린이 헤세의 작품을 다른 교양소설과 차별화하는 것은 헤세가 바로 이 같은 타협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헤세가 문학의 의미는 물론 언어의 의미, 나아가서는 생(生) 그 자체마저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참된 자아의 추구에 철저하였다는 점을 고평한다. 전혜린에게 번역이 지금-여기에서의 실존적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었음을 상기한다면 헤세에 대한 이 같은 옹호는 결국 전혜린 자신의 문학적 신념과도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이를 젊음의 상징적 가치에 대한 추구로 바꾸어쓸 때, 『데미안』에 대한 매혹은 전혜린, 혹은 그녀에게 빠져들었던 문학소녀들의 감상성이나 낭만성으로 치환될 수 없게 된다. 근대적 주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독서가 당대의 지배 담론과 맺는 관계는 한층 복잡하다.

4 교양소설의 세계를 욕망하는 여성들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를 읽고 자살을 시도한 소녀들이 유서에서 고백한 것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심경이었다. 이는 전혜린의 인기가 현실에서 벗

34 위의 글, 131쪽.

35 프랑코 모레티, 성은애 역, 『세상의 이치』, 문학동네, 2005, 27-31쪽, 38쪽.

어나고자 하는 대중들의 욕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를 향한 동경은 실로 전혜린의 수필집 전체를 관통한다. 특히 전혜린에게서 현실에 대한 불만은 독일 유학 시절에 대한 향수로 자주 표현된다. ‘전혜린 현상’이 서구에 대한 대중의 동경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해석은 이런 맥락에서 제기된다.

당시로는 드물게 유럽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 여성이라는 이력이 전혜린을 향한 관심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전혜린의 수필집에 수록된 글의 상당수가 독일에서 체류하였던 시기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한편, 『데미안』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 문학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점에서 전혜린의 수필집은 개인의 내면 기록일 뿐 아니라 대중들이 독일과 유럽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매개였다고도 할 수 있다. 전혜린의 글에서 뮌헨의 대학가는 자유, 낭만, 예술이 어우러진 이상향으로 재현되었고, 그에 대한 대중들의 열띤 반응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느끼던 억압의 정도와도 비례하는 것이었다.³⁶

이때 짚어두어야 할 것은 슈바빙에 대한 전혜린의 향수가 단순한 서구 동경이나 이국 취향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전혜린 스스로 ‘먼곳에의 그리움(Fernweh)’이라고 표현한 바 있듯이 그녀의 향수는 미지의 장소로 떠나고자 하는 충동에 가깝다.³⁷ 그러므로 슈바빙은 전혜린이 실제로 체험한 공간일 뿐 아니라, 전혜린 자신의 정신적인 지향을 투영하여 만들어진 이상향의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다.³⁸ 달리 말하면 슈바빙은 전혜린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상징하는 곳이 되, 그곳의 이름이 반드시 슈바빙이 되어야 했던 필연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로 가는 길」에서 전혜린은 “왜 하필 독일에 가게 되고 또 독문학을 공

36 김미영, 「1960~70년대에 간행된 한국 지식인들의 기행산문」, 『외국문학연구』 제5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3, 20-22쪽.

37 이와 관련하여 이현석은 전혜린의 그리움이 특정한 공간에 부착된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그녀가 자신의 향수를 스스로 “도착된 욕망”으로 칭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현석, 「1960년대 문학 감수성의 기원 낭만주의, 미적 형식 그리고 문학사적 연속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6호, 한국현대문학회, 2018, 419쪽.

38 김양선, 앞의 글, 217-220쪽.

부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꺼내든 뒤 자신의 독일행은 우연의 결과였다고 밝히기도 한다. 유학의 동기와 과정 모두 막연하고 충동적이었으며, 사실상 목적지가 독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전해린은 당시 자신의 의식을 지배한 것은 다만 “「출발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다」(Partir pour partir)”³⁹라던 한 시인의 시구였다고 기억한다. 이는 전해린이 욕망한 것이 이동성 그 자체였음을 뜻하는 것으로, 슈바빙에 대한 그녀의 회상에서 무엇보다 인상적으로 서술되는 것 역시 그곳을 채우고 있었던 젊음의 자질들이다.

내가 살았던 슈바빙區의 분위기가 가르쳐준 것. 언제나 아무도 안사는 그림을 그리고 아무도 안 입을 시를 쓰면서 굶다시피 살면서도 오만과 긍지를 안 버리는, 이 구역에 사는, 모두가 가난했고 대개가 외국이나 타 지방에서 모여든 화가나 학생이었던 그들한테서 나는 자유로운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운 것 같다.

목적물 가진 생활, 그 일 때문이라면 내일 죽어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생활, 따라서 온갖 물질적인 것에서 해방되어 타인의 이목에 구애되지 않는 생활이 그것인 것이다.

또 나는 편견없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 것 같다. 精神만이 결국 문제되는 유일의 것이라는 것도. 國籍도 피부색도 아무것도 거기에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았다. 영혼의 교동이 가능하여 정신이 一致될 수 있으면 그만이었다. 벗이나 그렇지 않느냐만이 문제였지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문제되지 않았다.

슈바빙구역은 가장 정신이 자유로운 곳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⁴⁰

「독일로 가는 길」에서 전해린은 슈바빙을 세계 각지의 학생과 예술가가 모여든 도시로 특징 지운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가난하였으나 바로 그런 이유로 오히려 물질적인 조건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오직 추상

39 전해린, 「독일로 가는 길」, 앞의 책, 56쪽.

40 위의 글, 57-58쪽.

적인 정신에만 가치를 두는 세계에서는 경제적 조건은 물론 서로의 구체적인 차이들, 가령 국적이거나 피부색 등도 제약이 되지 않는다. 이에 전해린은 “가장 정신이 자유로운” 그곳에서 “편견없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회상한다. 전해린이 말하는 슈바빙의 자유란 철저히 관념적 차원에서만 인간을 인식함으로써 얻게 되는 해방감으로 요약되는 셈이다.

의아한 것은 슈바빙의 정신적 자유를 예찬한 뒤 정작 전해린이 나열하는 기억들이 그곳에서 배웠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그녀의 기억들이란 가령 파우스트를 강의하는 교수의 사투리를 알아듣지 못해 속상했던 일, 또 기독교적 실존에 관한 강의 등을 수강할 때 홀로 라틴어와 희랍어를 받아 쓰지 못해 분통했던 일 등이다. 이때 파우스트나 기독교적 실존에 관한 강의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란 전해린이 『데미안』에서 발견하였던 인간의 이데아로 바꾸어 써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강의를 회상하며 전해린은 관념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였던 소외의 감각들을 떠올린다. 실존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번역어였던바, 어떤 차이도 무화하는 인간의 원형과 그것이 허락하는 자유란 기실은 지난한 번역과 학습을 통해 접근될 수 있는 관념이었던 까닭이다.

슈바빙에 대한 전해린의 상충하는 기억들은 관념상의 자유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현실적 과정의 괴리를 고스란히 노출한다. 전해린에게 있어 ‘독일로 가는 길’이란 『데미안』이 형상화하는 인간의 이데아를 향한 추구였으나 그 과정에서 그녀가 체험한 것은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무화될 수 없는 상이한 위치와 사회적 조건들이었다.⁴¹ 특히 슈바빙을 가장 이상적으로 묘사하려는 순간에서조차 전해린이 타자로 위치하였던 일화들을 연상하는 것은 징후적이다. 슈바빙의 실존 열에 매료되었던 바로 그 순간에 소외를 경험한 전해린의 기억은 아직 질문되지 않은 하나의 논점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 『데미안』이 상징하는 인간의 이데아

41 이와 관련하여 사카이 나오키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사카이는 번역이 절대적인 미지의 대상을 향한 기투(project)라고 규정하며, 이 같은 기투는 무엇보다도 세계의 문화지리 지도(geocultural map) 위에서 주어진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외국어 학습과 번역은 바로 이 사회적, 정치적 편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며, 이는 기존의 주체 위치를 탈구하고 변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사카이 나오키, 후지이 다케시 역, 『번역과 주체』, 이산,

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은 분명하나, 과연 그 같은 추상과 관념에 매료되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위치란 무엇이며 그 위치를 소유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혜린이 전후 독일에서 실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분열이 초래되는 상황을 관찰하는 대목은 흥미롭다. 전후 독일의 갈등 중에서도 특히 전혜린이 포착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인간이라는 관념이 기실은 어떤 차이를 포괄하지 못하며 오히려 배제해왔는지를 암시하는 것으로, 「남자-그 영원한 보헤미안」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룬 글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글에서 전혜린은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을 실존주의의 언어에 기대어 논한다.⁴² 먼저 전혜린은 “남녀 또는 부부의 모든 드라마는 그들이 타인이라는 데서 비롯한다”는 문장으로 말문을 연다. 이어 “타인은 언제나 타(他)의 의식의 죽음을 원한다”는 헤겔의 말을 인용한 뒤 전혜린은 특히 결혼 생활이 이 같은 갈등의 현장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데카르트 이래의 불행의식이 되 전혜린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이 처한 조건은 대등하지 않다. 남성은 역사적으로 방랑과 변화의 역할을 맡아왔던 데 비해 여성은 가정 내에 머물며 남성이 요구하는 지속의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다. 물론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자아실현 욕구도 강해지는 중이다. 그러나 갈등은 오히려 이로부터 촉발된다. 전혜린은 수많은 남성들이 이성적으로는 변화의 필연성을 인정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영원히 여성적인 것”⁴³을 꿈꾸며 여성들이 획득한 새로운 자기인식에 적의를 품는다고 진단한다.

2005, 90-92쪽.

42 이밖에도 여러 편의 글에서 전혜린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성 역시 자신의 생을 결단하고 기투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 점에서 이행미는 전혜린이 실존주의에 빠졌던 것은 관념에의 탐닉으로 단순화될 수 없으며 현실과의 관련성 속에서 그 연원과 맥락이 고찰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행미, 앞의 글, 119-120쪽, 130쪽.

43 전혜린, 「남자-그 영원한 보헤미안」, 앞의 책, 175-177쪽.

이율 배반에 빠진 남성들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전혜린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로리타』를 예시로 든다. 전혜린이 이 소설에서 주목하는 것은 지위, 안정, 가정의 행복, 지성 모두를 갖춘 남성이 미성년의 여성 님페트(Nymphet)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정열을 분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기묘한 정열을 전혜린은 현대 남성의 도원경이라고 평가하며, 그에 대응하여 여성들이 택할 수 있는 생존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따라서 이 각박한 현실하에 여자로서 두 개의 생존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하나는 여자로서의 자기를 백 퍼센트 의식하고 자기를 하나의 物, 육체로 보는 전적인 자기 포기(他者 의존적인 생활방식)이며, 또 하나는 자기를 인간으로(여자이기 전에) 의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자기를 사회 내에서 실현시켜 나가 보려는 외롭고 괴롭지만 떳떳하기는 한 두 가지 방법이다. 이 두 가지 중 이성의 사랑을 보다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자이며 후자는 사랑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생활 방식의 선택이다.

그러나 전자라 해서 절대로 안심은 아니다. 삼십대의 님페트는 생각해 볼 수조차 없지 않은가. 만물을 파괴하는 「시간」은 「로리타」라 해서 그대로 두지는 않는다. 그러니 언제까지 남성의 충애를 받을 수 있는가? 언제나 전전긍긍 불안에 떨어야 할 상태일 것이다.⁴⁴

전혜린이 제시하는 생존 방식은 극단적으로 대조된다. 하나가 자기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의 물(物)로 살아가는 타자 의존적인 삶이라면, 다른 하나는 자기를 물(物) 이상의 존재, 즉 인간으로 의식하고 사회 내에서 인간으로서의 자기를 실현해나가는 삶이다. 후자는 인간으로서의 본질에 충실을 기하는 삶이지만 남성의 사랑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에 외로움과 괴로움이 따른다. 한편 전자는 남성의 사랑을 향유할 수 있지만 그 역시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남성

44 위의 글, 180-181쪽.

들은 어디까지나 남성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의 존재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0대의 님페트란 상상하는 것조차 어색한 부자연스러운 형상이기에 남성의 사랑에 의존하는 여성들은 언제나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명시적으로 어느 한쪽이 긍정되고 있지는 않으나 문맥상 전혜린이 후자의 삶을 긍정하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파악된다. 전혜린은 이를 선택의 문제로 묘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사의 흐름에서 변화의 불가피성을 읽어낸다. 전쟁 이후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자기를 실현해나가고 있는 만큼, 미성년의 님페트를 원하는 남성들의 기대는 갈수록 좌절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성들이 심정적으로는 적의를 느끼면서도 이율 배반에 처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다. 설령 미성년의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의 인간인 이상 님페트는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후 독일에서 전혜린이 인상적으로 포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율 배반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변화의 국면으로, 이 같은 갈등 상황에서 실존주의의 언어가 각각의 주체들에게 상이한 효과를 발휘할 것임은 물론이다.

여성을 배제해온 인간 관념에 기대어 여성 역시 자율적인 내면을 지닌 존재임을 주장하는 발화의 조건은 한편으로 한계를 노정한다. 인간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기 위해 여성으로서의 자기인식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논리 구조에서 여성인 동시에 인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여성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한계 조건과 긴밀하게 연관되거나, 전혜린이 헤세의 소설을 죽음의 서사로 읽어내고 그로부터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징후적이다. 헤세 문학은 전통적 교양의 이념이 퇴색하고 개인과 사회의 조화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후기 교양소설 시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⁴⁵ 바로 그 서사에서 전혜린이 인간의 이데아를 발견하였던 것은 그녀가 사회로부터 물러난 후기 교양소설의 세계에서야 비로소 교양소설의 주인공이자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자리를 찾을 수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를 짚어내는 한편으로 보편적 인간 관념에 대한 매혹이

45 이창남, 「한-독 성장소설 비교연구 (1)—독일 성장 소설의 통시적 전개와 비교문학적 함의들」, 『괴테연구』 제21호, 한국괴테학회, 2008, 96-101쪽.

당시의 담론장에서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⁴⁶ 『이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의 서문이 예시하듯이 전혜린을 향한 비판적인 시선에는 보편의 미망을 극복하고 한국의 현실에 뿌리내린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⁴⁷ 그러나 이 같은 비판은 서구 보편과 구분되는 한국적 주체로 자기를 의식하는 것은 누구이며, 이 같은 자기의식은 어떠한 조건 속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누락한다. 독일 유학을 다녀온 독문학자이자 번역자로서 전혜린이 예외적인 존재였다고 할 때 그 예외성은 그녀가 손꼽히는 엘리트였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중으로 타자화된 위치로부터도 발생

46 이와 관련하여 근대적 개인 관념에 대한 조앤 스콧의 성찰은 좋은 참조가 된다. 조앤 스콧은 사회가 규정하는 여성이기를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여성의 이름으로 말화했던 여성들의 모순이 그들 자신의 모순이기에 앞서 추상적 개인 관념 자체의 모순임을 지적한다. 근대의 개인 관념은 보편성을 자임하면서도 기실은 타자로서 여성의 존재를 요청하는바, 스스로를 개인으로 입증하고자 했던 여성들의 목소리는 이 같은 개인 관념의 모순을 모순 안에서 담론화한 행위로 다시 평가될 수 있다. 조앤 스콧, 공임순·이화진·최영석 역,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 앨피, 2006, 65-67쪽.

47 이 점에서 표문태가 전혜린에게 공감하는 소녀들을 경계하기에 앞서 다름 아닌 번역에 관한 일화를 풀어놓는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만하다. 그의 글에서 먼저는 전혜린이 「안네·프랑크의 일기」의 공연 연습에 번역자로 참여하였을 때 한국 배우들의 능숙한 연기를 “막걸리 연기”라고 평하며 불편함을 표했던 일이, 다음으로는 첫날 공연이 끝난 뒤 S대학 연극반 학생들이 배우의 “흠냄새” 짙은 연기를 지적했던 일이 차례로 언급된다. 이로부터 전혜린의 문학과 젊은 세대 사이에 교환되고 있었던 언어를 찾아내며 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표문태의 시각은 ‘전혜린 현상’에 대한 이후의 논의들에서도 크게 수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혜린이 “현실의 고향과 민족을 팔호 쳐 버린 자유주의자”였으며 ‘전혜린 현상’의 중심에는 이 같은 “서구 추수적 지향성에 대한 대중의 동경”(서은주, 「[4·19 50년] 1960년대적인 것과 전혜린 현상」, 『플랫폼』 제20호, 인천문화재단, 2010, 37쪽)이 있었다는 평가나, 전혜린의 글을 “전후의 실존주의적 추상성과 허무의식이 ‘슈바빙’이라는 이국적인 향수와 이데아와 결합해 낡은”(정은경, 앞의 글, 778쪽) 결과물로 보고 그로부터 ‘전혜린적인 것’에 대한 대중의 동경을 설명하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정은경은 전혜린에 대한 독자들의 열광이 청소년기의 통과의례적 의식과정과 관련된다라고 보고 그 배경으로서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급속한 근대화에 주목한다. 그러나 “당시 전혜린의 수필이 이화여대를 비롯한 문학 소녀들에게 특히 많이 읽혔다는 것”(위의 글, 780쪽), 그리고 그녀를 모방하는 소녀들의 죽음이 특별히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 여성 독자에게 전혜린의 글과 번역작품이 지닌 성장소설적 성격이 갖는 의미와 그것의 시대적 함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한다. 이 같은 위치는 순수한 정신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슈바빙에서조차 소외를 체험하는 원인이 되었던바, 이중의 타자로서 보편을 욕망하는 전혜린의 글은 서구 대 한국이라는 이항 대립을 가로지르며 그 내부적 균열들을 드러낸다. 한국을 건너편 채 곧장 보편을 향하였던 전혜린의 욕망이 강하게 경계되어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여기에 있을 터이다. 전후 한국에서 실존주의는 세계적인 동시성과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통로였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인이라는 주체를 정립하려는 목표에 의해 제한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왜 독일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전혜린의 답변은 ‘우연’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그녀로서는 목적지가 반드시 독일이어야 할 이유도, 그곳에 가겠다고 미리 계획한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혜린의 목적지가 독일이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곳으로 초대된 것이 다름 아닌 여학교 동창 ‘주혜’였고, 바로 그녀의 편지를 계기로 전혜린의 독일행이 결정되고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주혜와 함께한 여학교 시절은 전혜린에게 인식욕으로 충만했던 동화의 세계로 기억된다. 전혜린은 그 순수했던 세계가 여학교 졸업과 더불어 종결되었다고 회상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정신(Geist)’이 빠져 있다는 갈증을 느끼던 중 주혜의 제안을 받아 독일행을 결심하였다고 이야기한다. 독일로의 여정이란 여학교 시절 학습하였던 관념의 세계와 그때 소유할 수 있었던 자기 언어를 향한 추구였던 셈이다. 그러므로 『데미안』에 대한 전혜린의 노트가 여학교 동창과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우연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기억에 담긴 전혜린의 욕망이 그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음은 전혜린 현상을 만들어낸 여성 독자들의 존재를 통해 입증된다. 1960년대 한국에서 『데미안』을 읽는 여성들의 존재는 서구 대 한국이라는 이항 대립으로 회수되지 않는 위치와 그로부터 비롯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전혜린이 1960년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라 할 때 그녀와 함께 가시화되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들 여성 독자의 열망일 것이다. 바로 그녀들을 통해 전혜린은 단지 한 명의 예외적인 엘리트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시대적 기호로 기록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데미안』이 1960년대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로 재탄생한 과정을 전혜린 현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교양소설의 독자로서 여성의 존재를 문제화하고 그 시대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전혜린의 수필집을 계기로 『데미안』이 재출간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헤세에 대한 지배적인 묘사는 전후 독일의 위상을 드높인 문호이자 인류의 정신적 지도자라는 것이었다. 그랬던 헤세가 청소년들의 애독서 『데미안』의 작가로 각인된 것은 전혜린 열풍이 『데미안』의 인기로 이어진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에 수록된 『데미안』의 독서 노트에서 전혜린은 청춘의 고뇌의 상이자 인간의 이데아로서 데미안을 조명한다. 이렇듯 『데미안』에서 가장 순수한 인간의 이데아를 찾아내면서 전혜린이 불러내는 것은 다름 아닌 여학교 동창의 죽음이다. 『데미안』을 품에 안고 죽은 여학교 동창은 전혜린의 노트에서 미성숙하거나 감상적인 여학생으로 묘사되는 대신 인간의 실존적 고뇌에 사로잡힌 청년의 형상을 입는다. “그 형상에 주목할 때 『데미안』이라는 베스트셀러의 탄생은 당대의 여성 독자들이 지닌 욕망과 그 의미를 들여다보게 하는 사건으로 다시 읽히기 시작한다.

『데미안』에 대한 매혹의 끝에 죽음이 놓여 있었던 것은 이들이 살았던 시대의 한계를 징후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이들의 욕망에서 엿볼 수 있는 변화의 징조는 이후 전혜린 열풍 속에서 자라난 여성들의 성장과 더불어 보다 구체화된다. 인류학자 조한혜정은 자신의 책에서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의 독서 체험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고등학교 때 나는 전혜린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을 책가방 속에 넣고 다녔다. 우리 소녀들은 모두 그의 ‘순수’를 향한 열망을 사랑했다. 밥을 먹지 않고 살고 싶어했고, 그가 말하는 ‘인식’ 속에서만 사는 삶을 꿈꾸었다. 그러한 꿈을 꼭 실현하리라 믿었던 나는 대학에 가면서 그를 잊었다. 그 꿈을 실현해내지 못한 그의 나약함과 타협을 비웃으면서…….

한참 후 세월이 흘렀고, 전혜린이 다시 찾아왔다. 나는 그가 서른을 갓 넘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단순히 애를 낳고 남자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던 여자로서의 조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죽은 것은 그가 감히 식민지 주민이면서, 삶을 이야기하는 ‘언어’를 가질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렇게 묻고 있었다. “통일 있는 내용을 생활 속에 담고 싶고 그 내용으로 내 전 영혼이 뒤흔들리는 그런 방식 속에 살고 싶다면 과대망상적일까?”

여자지만, 식민지 주민이지만, 감히 언어를 갖고자 했던 전해린을 여성의 언어에 대해 고민하던 나는 다시 기억해 내기로 했다.⁴⁸

조한혜정은 또래의 소녀들 모두가 전해린의 ‘순수’를 향한 열망을 사랑했다고 회상한다. 전해린과 마찬가지로 그녀들 또한 육체를 초월하여 오직 인식 속에서만 살아가는 삶을 동경하였다는 것이다. “보편적 인간/세계 시민”⁴⁹이 되겠다는 야망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조한혜정은 마치 『데미안』의 싱클레어처럼 멋지게 날아오를 준비를 하였다고 회상한다. 그런 그녀의 열망은 전해린의 그것과 몹시 닮아있다. 그러나 조한혜정은 오히려 그로 인해 대학 시절의 자신은 전해린을 잊었다고 이야기한다. 전해린의 죽음이 끝내 꿈을 실현해내지 못한 나약함과 타협의 산물로 여겨졌던 탓이다. 그랬던 조한혜정이 전해린을 기억 속에서 다시 불러낸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다. 식민지 주민이자 여성으로서 자신이 주변화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주변부의 존재가 자기의 언어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였을 때 조한혜정은 다시 한 번 전해린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고백한다.

조한혜정의 회고는 1960년대 한국의 여성 독자들에게 전해린이라는 아이콘이 무엇을 상징하였는지, 그리고 죽음을 계기로 비로소 주목받은 그녀의 수필이 여성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되물도록 한다. 이들이 매혹되었던 교양 소설의 세계와 그 끝에 놓여 있는 죽음이라는 사건은 여성인 동시에 인간이 되기란 불가능했던 현실의 모순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의 죽음은 여성과 인간이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 아니며 이들은 이미 여성인 동시에 인간

48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2—각자 선 자리에서』, 또하나의문화, 1994, 219쪽.

49 위의 책, 162쪽.

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조한혜정은 순수한 인식의 세계에서 살고자 하였던 전혜린을 식민지 주민, 그리고 여성이라는 조건 위에서 다시 찾아낸다. 전혜린이라는 이름은 “여자지만, 식민지 주민이지만, 감히 언어를 갖고자 했던” 열망의 상징이었던 까닭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김정진, 「헤르만·헤세의 문학과 생애—그의 서거에 부쳐서」, 『사상계』 제111호, 1962.9, 228-233쪽.

전혜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아PR연구소출판부, 1966, 56-58, 175-177, 180-181, 187-188쪽.

표문태, 「전혜린과 전혜린의 글에 대하여」, 전혜린, 『이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 동아PR연구소출판부, 1967, 1-16쪽.

헤르만 헤세, 전혜린 외 역, 『노오벨상문학전집 5』, 신구문화사, 1964, 131-137쪽.

『이대학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단행본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246쪽.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2—각자 선 자리에서』, 또한나의문화, 1994, 161-162, 219쪽.

사카이 나오키, 후지이 다케시 역, 『번역과 주체』, 이산, 2005, 90-92쪽.

조앤 스콧, 공임순·이화진·최영석 역, 『페미니즘 위대한 역사』, 엘피, 2006, 65-67쪽.

프랑코 모레티, 성은애 역, 『세상의 이치』, 문학동네, 2005, 27-31, 38쪽.

논문

- 김미영, 「1960~70년대에 간행된 한국 지식인들의 기행산문」, 『외국문학연구』 제5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3, 9-34쪽.
-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제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7-60쪽.
- 김양선, 「1950년대 세계여행기와 소설에 나타난 로컬의 심상지리—전후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205-230쪽.
- 박숙자, 「여성은 변역할 수 있는가—1960년대 전혜린의 죽음을 둘러싼 대중적 애도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제38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5-42쪽.
- 서은주, 「경계 밖의 문학인—‘전혜린’이라는 텍스트」, 『여성문학연구』 제1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33-56쪽.
- _____, 「[4·19 50년] 1960년대적인 것과 전혜린 현상」, 『플랫폼』 제20호, 인천문화재단, 2010, 34-37쪽.
- 안미영, 「혜세 문학의 수용, 자기완성의 수신서」, 『어문론총』 제73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 115-154쪽.
- 이용희, 「1960~70년대 베스트셀러 현상과 대학생의 독서문화—베스트셀러 제도의 형성과정과 1970년대 초중반의 독서 경향」, 『한국학연구』 제41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43-76쪽.
- 이창남, 「한·독 성장소설 비교연구 (1)—독일 성장 소설의 통시적 전개와 비교문학적 함의들」, 『괴테`연구』 제21호, 한국괴테학회, 2008, 89-110쪽.
- 이현석, 「1960년대 문학 감수성의 기원 낭만주의, 미적 형식 그리고 문학사적 연속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6호, 한국현대문학학회, 2018, 397-461쪽.
- 이행미, 「전혜린의 젠더의식과 실천적 글쓰기」, 『여성문학연구』 제4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117-160쪽.
- 장순란, 「한국 최초의 여성 독문학자 전혜린의 삶과 글쓰기에 대한 조명」, 『독일어문학』 제21호, 한국독일어학회, 2003, 149-174쪽.
- 정은경, 「전혜린 신화와 평전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44호, 우리문학회, 2014, 759-798쪽.

천정환, 「처세·교양·실존—1960년대의 ‘자기계발’과 문학문화」, 『민족문학사연구』 제40호, 민족문학사학회, 2009, 91-133쪽.

Abstract

A share of universality through reading by ‘Literature Girl’
—Jeon Hyerin’s essay and the reborn of *Demian* as a bestseller

Lim Jinha

This essay investigates the phenomenon of Herman Hesse’s novel *Demian* being reborn as a bestseller owing to Jeon Hyerin’s essay on the novel. It also complicates the position of female readers of this novel as a bildungsroman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its cultural history. In the early 1960s Korea, Hesse was recognized as a literary giant and a spiritual leader of post-war Germany. However, it was Jeon Hyerin’s essay which prompted Hesse’s novel *Demian* to become a bestseller, and for the German writer to be known as a writer of the most beloved coming-of-age novel. In her essay, Jeon Hyerin described *Demian* as a youth obsessed with pursuing existentialist questions and exploring the ‘idea’ of a human. She also wrote about a classmate of hers from girls’ school who had died after reading the novel under discussion. This, perhaps, could also hint at the reason why women who read her essay took an interest in *Demian*. The readers were captivated by the universal symbols of the modern age embodied in the novel as argued by Jeon Hyerin. I intend to argue that Jeon Hyerin’s essay suggests that she experienced alienation as a Korean woman, which encouraged her interest in universality despite the fact that the same universality would be denied to her for that very reason. It was also this very ‘universality’ that rendered Jeon Hyerin susceptible to criticism. Her emphasis on universality was seen as abstract and thus, lacking a historical consciousness. As a Korean, and as a woman, Jeon Hyerin experienced double othering which also ignited the need in her for a universal language. Her aspirations for universality revealed the internalized cracks which exist between the dichotomy of the West and Korea. Reading and translating German literature was a process for her to reclaim her position as a Subject within this framework. Jeon Hyerin is remembered as a cultural symbol because she was not the only one who desired to share universality through literature in that time. It was also the female readers of the time who also displayed the same desire.

Key words: Jeon Hyerin, gender, translation, bildungsroman, Hermann Hesse, *Demian*, reading culture, women readers

본 논문은 2020년 11월 17일에 접수되어 2020년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0년 12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